

“위대한 미국 전통속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 완성”

美 '노래하는 시인' 밥 딜런, 노벨 문학상 수상

올해 노벨 문학상은 '노래하는 시인'으로 평가받는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74)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미국 가수 밥 딜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림원은 “위대한 미국 전통 속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만들어낸 공로로 밥 딜런을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0여년전부터 딜런은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돼왔던 만큼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노벨 문학상 역사상 대중가수가 상을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41년생으로 올해 74세가 된 밥 딜런은 미국 미네소타 주 출신으로 밥 딜런이란 이름은 영국 시인 딜런 토마스(Thomas)를 좋아해서 그의 이름을 따 개명했다. 본명은 로버트 앨런 지머맨 1960년대부터 포크록을 대표하는 가수이자 인권운동가이며, 시인이자 화가로 활동해왔다. 올해 노벨문학상이 미국 포크록 가수 밥 딜런에게 돌아가면서 그가 명실상부 20세기 대중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됐다.

1962년 셀프 타이틀 앨범으로 데뷔한 딜런은 비음이 섞인 독특한 음색과 철학적인 가사 진술한 메시지 등을 통해 세계의 팬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인종차별 반대, 반전, 반핵 등 정치적이고 사회성 짙은 음악을 끊임없이 발표하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1960년대 중반 포크에 록을 결합시킨 음악을 발표하며 포크 팬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1965년 뉴 포트 포크 페스티벌 당시 딜런이 어쿠스틱 기타를 버리고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한 시발점이 됐던 '라이크 어 롤링 스톤(Like A Rolling Stone)'이 바로 그 곡이다.

이후 순혈 포크주의자들에게 외면 받았지만 포크록의 전설로서 첫 발을 내딛게 만든 노래이기도 하다. 이후 포크 음악과 록을 결합한 과격적인 음악스타일로 새로운 장르를 연 혁명가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상업 음악가로 유명한 인물인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광계 역시 흥분하는 분위기가. 딜런은 미국 포크음악의 대부인 동시에 영국 시인 '딜런 토마스'에서 딜런이라는 이름을 따 예명으로 삼을 만큼 시적인 가사로 잘 알려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노벨문학상 후보 단골 손님이었다.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대수, 김민기, 양희은, 양병집, 서유석 등 70년대 한국 포크 가수들이 그의 자장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유명



올해 노벨 문학상은 '노래하는 시인'으로 평가받는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74)에게 돌아갔다.

하다. 김광석과 같은 후대에 등장한 가수들 역시 밥 딜런의 곡을 번안해서 불렀다. '노랑 온 해브스 도어'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인기다. '블로잉 인 더 윈드'는 한국의 학생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더 타임스 데이 아어 체인징'은 저항적 노랫말로 시민권을 대표하는 곡이었다.

이러한 가사들로 딜런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저항의 아이콘으로 읽혔다. 세계적 권위의 음악잡지 롤링스톤은 밥

딜런을 영국 밴드 '비틀즈'에 이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2위로 선정했다. 하지만 비틀즈 역시 음악·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가 딜런이다.

내한 공연은 데뷔 48년 만인 2010년 3월31일 단 한 차례였다. 딜런은 당시 2시간을 공연하는 동안 막바지 멤버들을 소개할 때를 제외하고 기타부터 말이 없었다. 오로지 음악만을 들려줬다.

/뉴시스

글로벌 창작가 성공사례와 비전 공유 특강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17일부터 미래 콘텐츠사업을 이끌어갈 창의인재와 크리에이터들을 초청해 글로벌 창작가의 성공사례와 비전을 공유하는 오픈특강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밝혔다.

총 4차례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콘텐츠진흥원의 '창의인재동반사업'의 일환이다. 17일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열리는 첫 특강에는 '중국시장의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콘텐츠'라는 주제로 중국 또는 한·중 투자제자의 선두그룹에 있는 화웨이그룹의 김치형 이사, 뉴클루즈의 신아름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사업 담당자, 콘텐츠사업 대표가 참여한다.

현재 중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TV, 웹드라마, 웹툰, 예능, 영화, 소설 등 다양한 매체들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고 그 중 한류 콘텐츠가 중국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매력과 갖고 있는지 집중 분석한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홍행'을 부르는 콘텐츠 기획·장편 애니메이션 제작과 기획, 투자와 배급을 주제로 두 번째 특강이 열린다. 장편 애니메이션영화 '서울역', '사바'의 연상호 감독과 콘텐츠산업의 김재민 이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연상호 감독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영화의 실제 제작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이야기를, 영화 배급 마케팅 전문가인 김재민 이사는 한국 영화시장에서 애니메이션의 투자·배급 마케팅의 시스템과 실제사례 등을 발표한다. 다음달 진행되는 특강은 영화와 공연 전반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오픈특강은 한국콘텐츠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edukocca.kr>)에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뉴시스



강이체, 첫 정규 앨범 '레디컬 파라다이스' 발매

싱어송라이터 겸 바이올리니스트인 강이체가 첫 번째 정규 앨범 '레디컬 파라다이스(Radical Paradise)'를 발표했다. 앨범명과 동명곡인 '레디컬 파라다이스'를 비롯해 '너 바 이올린' 등 자작곡 13곡으로 앨범을 채웠다.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뉴퍼스트' 6주 준우승자 김필 등이 참여했다.

강이체는 각종 공쿠르에서 입상하며 클래식 공부에 전념하던 중 집시 재즈 음악에 심취, 미국 버클리 음대 전액 장학생으로 유학하게 되었다.

이후 유학 생활 중 재즈계의 거장 론 카터 콘서트에서 솔로리스트로서 연주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 '포레스트 검프', '캐스트 어웨이' 등의 음악으로 명성을 드높인 앨런 실베스트리와 협연하는 등 재능을 인정 받았다.

보컬의 매력도 상당하다. 독특하고 몽환적인 질감의 목소리가 귓가를 감돈다. 교감하듯 춤추는 바이올린과 몽상적으로 어우러진다. 오는 11월5일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를 연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신예 국악인 응원하는 '대학생협연의 밤'

전주시립국악단의 기획공연

전주시립국악단의 기획공연 '대학생협연의 밤'이 오는 18~19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자리는 전통 음악을 이끌어갈 신예 국악인에게 협연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18일 무대에는 최석근(대금), 이자윤(해금), 임해민(25현가야금), 송가현(아쟁), 박창명(태평소)이 이튿날인 19일엔 김수진(해금), 유상일(대금), 정혜영(태평소), 임지윤(아쟁), 진대(타악)가 박천지 지휘자와 함께 출연한다.

이날 공연에서 해금 연주가 이지윤은 혼불 시기를 연주한다. 이 곡은 고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혼불 시리즈 중의 5번째 작품으로, 소설 혼불 제5권 '아스님'에서 받은 미화적 이미지를 해금독주곡으로 풀어냈다. 관현악 도입부와 해금솔로 관현악 투트가 교대로 나오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등 다양한 조화로 이루어진 10개의 부분이 해금독주를 중심으로 긴장과 이완의 변화를 통해 연주된다.

전통장르타악그룹인 진대는 설장구협주곡을 들려준다. 설장구는 장구 연주자들 중에서도 88 가장 으뜸이 되는 기예와



대학생협연의 밤' 포스터

재주를 지닌 연주자를 나타내는 말로 그 높이를 설장구 높음 또는 설장구 낮고 표현한다. 이 곡은 점차 빨라지는 음악적 형식을 띄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폭발적이고 빠른 설장구의 즉흥 연주가 일품이다.

예매는 누리컬쳐 www.nuriculture.com. 관람료는 일반 5천원, 학생 3천원, 공연문의는 063)281-2766. /정해은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전북미술의 현장전

전북도립미술관은 전북미술계의 활성화와 청·장년작가 지원을 위하여 도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를 선정하여 '2016 전북미술의 현장전'을 개최한다.

오는 24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현장전은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도내 작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수집가와 평론가에게 소개하기 위한 전시이다.

이번 전시에는 강성은, 김성수, 김영란, 김원, 김철규, 김관목, 문민, 박시원, 송지호, 양순실, 이동형, 이일순, 이주원, 이홍규, 임대준, 임희성, 장우석, 최석우, 홍승택, 황유진 등 총 2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2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관목 작가는 'Food'에서 멀리 혹은 가까이 있는 무언가를 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모순적인 형태로 보여준다. 작품에는 욕망을 뜻하는 의미로 망원경과 돋보기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관념과는 다르게 들려져 있으며 얼굴(시선)이 없다.

이는 어떤 목표지점을 향해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모를 어지러운 현실세계를 묘사한다. 개인주의적 삶으로 인한 사회의 변형이 어떠한 기형적 현실을 낳게 되었는

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작품이다.

장우석 작가는 'Steal out-진실의 경계'에서 붉은 실을 사용해 인터넷 신조어 팩트(Fact)폭력(팩트를 제시해서 상대방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알려주는 모습이라는 뜻)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작품 속의 붉은 실은 진실을 대변하는 장치로 쓰인다. 작가는 진실을 마주했을 때 붉은 실은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거부할수록 그 붉은 실은 육체이며 점점 고통으로 다가오며, 진실과 마주하는 진정한 자세는 의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몽경 속 풍경(파랑새를 보다)' 작품에서 송지호 작가는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 한다. 작가는 일상 속의 소소한 이야기를 사실스럽게 그려내며, 동화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의인화된 사물을 통해 행복의 가치를 은유적으로 묘사했다. 작품은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고미운 것인지 다시금 일깨워 준다. 또한 행복은 누군가 선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야기 한다.

/정해은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 <2016년 10월 17일>

<p>▷쥐띠 4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때이니 적극 진행하라. 60년생: 인덕이 따르는 날이니 혼자 고민하지 말라. 72년생: 동기진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니 먼저 베풀라. 84년생: 처음에는 힘든 운이니 후반에는 잘 풀린다.</p>	<p>▷소띠 49년생: 너무 크게 움직이거나 큰 것을 일으키지 말라. 61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는 운. 73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운. 85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는 운이니 손을 내밀라.</p>	<p>▷호랑이띠 50년생: 사교수가 따르니 행운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6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주의하라. 74년생: 인덕은 버리지 말고 혼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86년생: 친구나 동기진과 뜻이 맞지 않으니 함께 일을 도모하라.</p>	<p>▷토끼띠 51년생: 사소한 실수가 타인에게는 큰 피해가 되니 조심하라. 63년생: 금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75년생: 뜻하지 않은 일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니 조심하라. 87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이니 미리 계획을 세워라.</p>
<p>▷용띠 52년생: 잠시 불만만 할 일이 발생하니 동요하지 말라. 64년생: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으니 원하는 것을 얻는다. 76년생: 함께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써라. 88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p>	<p>▷뱀띠 53년생: 때로는 조용한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65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니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77년생: 이성과 불화가 생기는 운이다. 기호지는 부부불화에 주의. 89년생: 관법은 통하지 않으니 정도를 지키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라.</p>	<p>▷말띠 54년생: 좋은일 하고 뽐 받는 격이니,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 6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생기니 걱정마라. 78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90년생: 식욕이 따르니 모임을 하거나 식사약속을 하기에 좋은 운.</p>	<p>▷양띠 55년생: 대립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67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는 운이다. 79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는 운이니 매사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91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난관이 생기는 운.</p>
<p>▷원숭이띠 5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무리한 추진은 삼가라. 69년생: 바쁘지만 하고 바쁜만큼의 이득은 얻기 어렵다. 81년생: 처음에는 어긋나니 후반에는 같은 마음이 된다. 93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운.</p>	<p>▷닭띠 57년생: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하는 운. 69년생: 뒷사람의 덕이 충만하니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격이다. 81년생: 여성은 남성의 조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라.</p>	<p>▷개띠 48년생: 크게 움직이면 금전 손실만 많이 따른다. 60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익을 보게 된다. 72년생: 과도한 의욕을 앞세워 독단행 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84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만한 일이 발생하니 주의하라. 96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만한 일이 발생하니 주의하라.</p>	<p>▷돼지띠 47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59년생: 문서에 결성이 따르니 문서를 주고 받기에는 좋은 때이다. 71년생: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말라. 83년생: 작은것에 욕심 부리지 큰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p>